

대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투지 및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Adapt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Self-leadership

주지향*, 정구철**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Gi-Hyang Joo(jooji006@naver.com)*,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 대학생 233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5세(SD=1.7)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영생활적응과 투지, 셀프리더십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병영생활적응은 투지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투지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넷째,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병영생활적응이 대학생들의 투지와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개인의 성장이 복학 후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영생활과 대학생활에 대한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병영생활 | 대학생활 | 적응 | 투지 | 셀프리더십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adapt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mal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3 male college students who returned to college after military duty and the average age was 25(SD=1.7).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ere seen between military life adaptation, grit, self-leadership, and college life adaptation. Second, military life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grit, self-leadership,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ird, gri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adapt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Fourth, self-leadership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adapt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is study showed that military life adaptation improved the grit and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and that this personal growt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life adaptation after returning from military du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and college life was discussed.

■ keyword : | Military | College Life | Adaptation | Grit | Self-leadership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병역이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군대 하부 구성원의 대부분은 의무복무자로 충원되고 있다[1]. 우리나라 군장병들의 입대 시기는 일반적으로 20세부터 25세에 해당되고, 이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 시기에 대학교에서 남학생의 73.9%가 군대에 입대하고[2], 군복무 후에 다시 학교로 복학하고 있다[3]. 청년기 겪는 병영생활은 청년들의 발달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제대 후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인해 병영생활의 적응 문제는 개인의 적응 문제뿐 아니라 이후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4]. 청년기에는 학문과 더불어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며 성장하기에[5], 이 시기에 경험하는 병영생활은 새로운 환경 적응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성을 시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군복무 기간 동안 병사는 입대 이전의 생활과 완전히 다른 체계에 적응해야 하고 계급이 존재하는 단체생활을 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사들은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면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에게 심리적 위함으로 지각될 수 있고[6],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따라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7]. 청년들에게 병영생활적응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조직생활을 경험하고,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활과 성인기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병영생활적응은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군대 내의 환경 속에서 영향력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군의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며[8], 이는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병영생활적응은 장병들 스스로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개인화와 군 조직에서의 사회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군에서의 개인화란 조직 안에 구성원으로 원활히 활동하기 위해 필요

한 역할에 자신을 적합한 상태로 소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화란 구성원으로서 군 조직에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행동양식을 학습하도록 변화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말한다[9][10].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병영생활에 필요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예의를 배우게 된다[11]. 군복무를 마친 대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군 생활 만족도와 군 제대 후 성장에 관한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군 생활 만족도는 낙관성이나 사회적 지지보다 더 강하게 군 제대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12], 특히 군 생활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정서적 역경을 잘 극복하는 경험이 제대 후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병영생활에 대한 적절한 적응 경험은 제대 후 대학생활적응과 건강한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계적인 관계라는 특성을 가지는 군대의 조직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병사들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상급자로 올라간 병사는 선임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병사들은 선임으로서의 모본과 리더십을 끊임없이 발휘하여야 하며, 이러한 리더십의 발휘는 후임 병사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셀프리더십의 향상을 가져온다. 군대 내에서 셀프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사가 부하와 비전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하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부하들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하의 셀프리더십은 병영 내에서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 군에서의 자연스러운 승진과 상사의 영향은 부하들의 셀프리더십 발달을 가져오고 있었다. 과거에는 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리더십이 요구되었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14], 병영생활을 통한 셀프리더십의 향상은 현대사회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이란 주도적인 자세로 동기를 부여하며, 목표를 확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하

는 리더십이다[15]. 즉, 영향력을 자신에게 행사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스스로 실행하는 것이다[16]. 전통적인 리더십은 보상, 처벌, 지시, 통제, 명령 등으로 외부에서 발휘된다면, 셀프리더십은 외적인 방향으로만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여 행사하는 대안적 리더십 개념으로 볼 수 있다[17]. 특히 병영생활 중 상사의 지시적 리더십이 부하들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시적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13].

셀프리더십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 잠재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육이나 학습으로 발전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18][19]. 이러한 점은 셀프리더십이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이며, 병영생활은 이러한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사회진출을 위해 자기계발에 힘써야 하는 대학생이라는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셀프리더십은 반드시 성장시켜야 할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 258명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취업전략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 정보 탐색이나 경력개발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 취업전략에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전략이 가장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보상 전략과 행동중심 전략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20]. 동일한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통제되었을 때, 학업성취나 대학만족도가 취업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었다[20]. 이러한 과정은 군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활에서 선배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자기관리에 힘쓰는 등 새로운 대학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사회적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역 전 병사 집단과 신병 집단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전역 전 병사들은 신병 병사들보다 개인 강점의 변화, 인간관계 의미변화 등을 높게 인식하였고, 개인의 역경이나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능력인 탄력성 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민감성, 만족감, 이해성과 같은 요인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1]. 이처럼 병영생활을 통해 함양하게 된 적절한 자기 조절 능력과 긍정적인 성장 경험은 제대 후 대학생활적 용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22].

군인정신의 핵심 중 하나인 임무 완수의 사명은 병영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군인정신은 목표에 대한 관심의 일관성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투지(grit)라고 명명하여 분석하고 있다. 투지란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로 정의할 수 있다[23]. 고된 훈련으로 유명한 미 육군사관학교 하계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성에서도 높은 투지가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24], 높은 수준의 투지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목표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25]. 또한, 투지가 높은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즐기며, 자신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희망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26].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도 주목받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성취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27].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에서는 투지를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지목하여, 학생들의 투지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8].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투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29-31]. 또한, 삶의 만족, 진로 준비 행동 등이 투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32][33],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34]. 자연과학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투지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투지는 전공에 대한 흥미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투지가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33].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 대학생 대상으로 투지 수준과 잠재적 중도탈락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투지가 높은 집단이

학업을 중도에 중단할 가능성이 작았고,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 학업 성취도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또한, 대학생들의 투지가 높을수록 진로 준비 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27], 투지가 대학생들의 학교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임무 완수라는 군 조직의 특수성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투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한 투지는 제대 후 대학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남자 대학생들이 청년기 중에서 약 2년의 세월을 의무로 군 복무하고 있지만, 일부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기기도 한다. 병영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성장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 병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로 편중해 있으며[36-38], 병영생활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나 성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병영생활 경험을 통한 셀프리더십과 투지의 향상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병영생활 경험을 통한 대학생들의 성장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병영생활을 통한 성장요인을 파악하고, 군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대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를 통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셀프리더십을 통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7개 대학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남자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6월에 약 한 달 동안 SNS를 활용해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한 후,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SNS프로그램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커뮤니티 페이지 등의 관리자와 연락을 취한 후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설문조사의 첫 화면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응답한 모든 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 응답에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중도에 취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포기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동의를 선택한 사람만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동의절차를 거쳐 수거된 설문지는 총 234부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최종 2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91명(39.1%)이었고, 자연과학계열이 120명(51.5%), 예체능계열이 22명(9.4%)이다. 복무부대는 육군 출신이 172(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출신이 20명(8.6%), 해군 출신이 7명(3.0%), 기타인 경우는 34명(14.6%)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5명(23.6%), '중'이 157명(67.4%), '하'가 21명(9.0%)이었다. 종교가 있다

고 응답한 학생이 100명(42.9%),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33명(57.1%)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0세(SD=1.7)였다.

2. 연구 도구

2.1 병역생활적응

병역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Stauffer[39]가 제작하고, 장정기[40]가 수정한 척도를 군 제대자에게 맞추어 서술어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신의 안정, 임무수행 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 생활관 적응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역생활적응의 문항은 “평상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명랑한 편이었다.” “나의 부대 생활은 대체로 재미있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측정은 군 복무 중 적응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병역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가 높았던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높게 나타났다.

2.2 투지

Duckworth 등[41]이 비인지적 특질인 ‘투지(grit)’를 측정하기 위해 Original Grit Scale(GRIT-O)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수란[4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관심의 일관성 및 노력의 꾸준함을 측정하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지의 문항을 살펴보면 “때때로 새로운 생각이나 일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일이 방해받는다.” “나는 중요한 도전을 위해 좌절을 극복해 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투지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2.3 셀프리더십

Goldsby, Houghton과 Neck[43]의 셀프리더십 척도를 박충화[44]가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행위중심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전략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문항이었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나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는 내가 얼마나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등이며,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2.4 대학생생활적응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은식[45]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최임숙[46]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생활적응의 세 가지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나는 대학 생활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병역생활적응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는 Preacher와 Hayes의 SPSS Macro 명령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47],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값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연구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76 ~ .42)와 첨도(.01 ~ .75)로 분석한 결과 절댓값이 모두 2 이하로 나타나 연구변수들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표 1.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 (N=233)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병영생활적응 | 84.19 | 13.06 | -.76 | .75 |
| 투지 | 37.67 | 5.74 | .42 | .66 |
| 셀프리더십 | 52.03 | 6.57 | .23 | .18 |
| 대학생활적응 | 72.91 | 9.05 | -.17 | .01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 전공계열과 소속부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수준의 경우 중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보다 유의하게 병영생활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N=233)

| 변수 | 병영생활적응 | | 투지 | | 셀프리더십 | | 대학생활적응 | |
|----------------|--------------|----------------|-------------|----------------|-------------|---------------|-------------|----------------|
| | M(SD) | F(p) | M(SD) | F(p) | M(SD) | F(p) | M(SD) | F(p) |
| 전공계열 | | | | | | | | |
| 인문사회 | 84.43(12.70) | | 38.11(5.69) | | 52.55(6.62) | | 73.87(9.65) | |
| 자연과학 | 83.76(13.57) | .20 (.814) | 37.28(5.82) | .55 (.574) | 51.74(6.28) | .46 (.626) | 71.97(8.54) | 1.33 (.264) |
| 예체능 | 85.59(12.13) | | 37.91(5.58) | | 51.50(7.95) | | 74.05(9.02) | |
| 소속부대 | | | | | | | | |
| 공군 | 83.15(16.73) | | 36.55(5.12) | | 52.40(5.92) | | 72.70(7.76) | |
| 육군 | 83.67(13.19) | .78 (.505) | 37.80(6.02) | .37 (.772) | 52.32(6.85) | .72 (.538) | 72.91(9.63) | .01 (.997) |
| 해군 | 89.00(8.10) | | 38.71(4.07) | | 50.57(5.71) | | 72.43(9.25) | |
| 기타 | 86.44(10.63) | | 37.44(4.96) | | 50.68(5.58) | | 73.12(6.71) | |
| 경제수준 | | | | | | | | |
| 상 ^a | 79.29(13.50) | 6.05 (.003) | 35.73(5.52) | 4.32 (.014) | 52.11(8.03) | .84 (.430) | 70.49(9.79) | 2.70 (.069) |
| 중 ^b | 85.27(12.88) | | 38.34(5.82) | | 51.78(6.14) | | 73.54(9.00) | |
| 하 ^c | 88.95(9.68) | a ,c | 37.71(4.62) | a | 53.76(5.34) | | 74.48(6.11) | |
| 종교 | | | | | | | | |
| 유 | 84.35(13.67) | .02 (.874) | 37.04(5.49) | 2.08 (.150) | 52.19(5.87) | .09 (.755) | 72.62(8.88) | .17 (.677) |
| 무 | 84.08(12.64) | | 38.14(5.90) | | 51.92(7.07) | | 73.12(9.20) | |

주. 알파벳은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임.

적응이 높았고(F=6.05, p=.003), 상위보다 중위집단이 유의하게 투지도 높았다(F=4.32, p=.014). 종교 유무에서는 연구변수들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3], 병영생활적응과 투지(r=.16, p<.05), 셀프리더십(r=.18, p<.01) 그리고 대학생활적응(r=.32, p<.001)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투지는 셀프리더십(r=.31, p<.001) 및 대학생활적응(r=.5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적응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3, p<.001).

표 3.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N=233)

| 변수 | 병영생활적응 | 투지 | 셀프리더십 |
|--------|--------|--------|--------|
| 투지 | .16* | | |
| 셀프리더십 | .18** | .31*** | |
| 대학생활적응 | .32*** | .51*** | .36*** |

*p<.05, **p<.01, ***p<.001

4.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병영생활적응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병영생활적응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가 있었다($B=.15, p<.001$). 이를 통해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병영생활적응은 매개변수인 투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07, p=.013$), 투지는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65, p<.001$). 또한 병영생활적응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09, p=.005$), 셀프리더십은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26, p<.001$).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5.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2=35.7, F=42.31, p<.001$).

표 4.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N=233)

| 경로 | B | SE | t | p |
|-----------------|-----|-----|------|-------|
| 병영생활적응 → 투지 | .07 | .02 | 2.49 | .013 |
| 병영생활적응 → 셀프리더십 | .09 | .03 | 2.82 | .005 |
| 투지 → 대학생활적응 | .65 | .08 | 7.45 | <.001 |
| 셀프리더십 → 대학생활적응 | .26 | .07 | 3.45 | <.001 |
| 병영생활적응 → 대학생활적응 | .15 | .03 | 4.02 | <.001 |

투지와 셀프리더십을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표 5].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재 표집 수는 10,000으로 지정하였고, 산출된 95% 신뢰구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지($B=.05, 95\% CI=.01\sim.09$)와 셀프리더십($B=.03, 95\% CI=.01\sim.06$)을 통한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를 통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와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셀프리더십을 통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이 모두 지지되었다.

두 매개효과 간의 차이를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Delta B=.02, 95\% CI=-.02\sim.07$). 이를 통해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병영생활적응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투지 및 셀프리더십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간접효과의 Bootstrapping 분석 결과

| 경로 | B | 95% CI |
|-------------------------|-----|------------|
| 병영생활적응 → 투지 → 대학생활적응 | .05 | .01 ~ .09 |
| 병영생활적응 → 셀프리더십 → 대학생활적응 | .03 | .01 ~ .06 |
| ΔB | .02 | -.02 ~ .07 |

IV. 논의

본 연구는 병영생활적응, 투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투지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해군과 해병대 병사를 대상으로 투지와 군생활 적응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투지와 군생활 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48]. 이러한 결과는 병영생활이 시간낭비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강점인 투지를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복귀와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일부 검증하였다. 병영생활 기간 동안 군 장병들은 주특기별로 각 부대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임무가 있으며, 이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군 조직의 목적은 국가를 방위하는 데 집중되며,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실패했을 때에는 국가의 존속이 불가능하므로, 군장병은 임무 완수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이 동원된 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군 상황에서 발생하는 훈련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군 복무를 통해 얻은 조직적응력과 인

내심 등은 제대 후 경험하는 조직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49].

전방에서 병영생활을 했던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전방에서의 병영생활이 인생에 많은 경험이 되었고, 참을성이 생기며, 자신의 인생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50]. 또한 공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의 투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투지는 생도 생활에 집중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보면서, 투지를 길러 군인의 정신력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입생들이 질적 연구를 통해 보고하고 있었다[51]. 군 복무기간 중의 다양한 훈련은 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집중하게 하는 투지를 향상시키게 된다. 제대 후 대학생활에서도 성실하게 학업과 성적을 관리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관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투지가 필요하며, 군 복무기간 중 향상된 투지는 대학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의 차이가 있지만 투지가 강한 사람은 쉽게 소진되지 않으며, 상황의 변화에도 개의치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52], 다양한 상황에서 투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군 여사관생도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투지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53]. 이에 대해 여생도들이 남생도들과 비교되거나 선천적인 지능이나 신체조건의 영향을 더욱 고려할수록 투지에 대한 부적절한 개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53]. 투지는 변화에 대한 신념이고 경험을 통해 신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고정되었을 때,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투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파악하여 나의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의식적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연습을 하며, 목표에 도달하려는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공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지루함과 고통에서 희망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54]. 그러므로 군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들이 임무수행을 위해 길러진 투지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대학생활적응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55][56], 비교적 일관되게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병영생활 중 병사들의 셀프리더십은 병영생활 중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난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나[13], 셀프리더십이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군 조직에서 사병들의 진급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군인들은 하급자에서 상급자로의 진급을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급자들을 지휘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강력하고 철저한 위계적 명령체계 조직이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역할이 명확하게 부여되므로[57], 상급자는 하급자를 통솔하고 지휘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 장병들은 자기 자신과 하급자를 관리하는 리더십을 경험하게 된다. 군대 내에서는 수행해야 할 업무와 권한이 계급과 직책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58], 타인을 지휘하지 않더라도, 병영생활 동안 규칙적인 습관과 업무 종료 후 주어지는 자유시간 속에서 학업과 체력단련 등으로 본인의 발전을 위한 통제적 자기관리를 통해 셀프리더십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셀프리더십은 병영생활 기간 동안 지위의 변동과 내무반 생활의 통제 등을 통해 향상되고, 셀프리더십의 증진을 통해 대학생활적응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병장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점검하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병영생활적응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의무복무인 병영생활을 자신의 성장으로 수용하는 경우 제대 후 대학생활에서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낭비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기에 주력하기보다는, 의무 복무 기간이지만 이를 통해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성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복학 후 대학생활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간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대학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으므로 병영생활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성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시키고 병영생활을 긍정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적용된다면 병영생활적응 뿐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영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 요소인 투지와 셀프리더십이 제대 후 대학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가능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표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의 병종과 복무 환경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종과 복무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표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인들의 성장과 제대 후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선행연구 고찰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외의 경우에도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아 국외 문헌을 고찰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추후 다양한 병영생활에 관한 긍정심리학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학생들의 성장과 병영생활의 긍정적 효과를 밝히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군 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등이 필요하다. 약 2년간의 군복무로 인해 대학과 교우관계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복학생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병영생활경험 후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단적인 추적 연구를 교육부와 국방부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병영생활을 통한

성장과 같은 긍정적 요소에 대한 중단적 연구를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병영생활기간 동안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에 투지와 셀프리더십 요인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병영생활로 인해 얻게 되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장병들의 개인적 성장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병영생활적응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투지와 셀프리더십의 성장과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은 제1저자 주지향(2018)의 석사학위논문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참고 문헌

- [1] 국방부, 국방백서, 2004.
- [2] 병무청, 2016년 병무통계연보, 사이버홍보관 e-book 코너, http://www.mma.go.kr/board/boardList.do?mc=usr0000273&gesipan_id=170, 2017.
- [3] 김선영, “군 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 연구*, 제22권, 제2호, pp.127-156, 2016.
- [4] 류진아, “군 생활 적응적인 병사의 특성 분석,” *교육치료연구*, 제8권, 제3호, pp.533-548, 2016.
- [5]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양서원, 2002.
- [6] 최바울, *대학생의 적응유연성 신념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7] 윤진, 김도환, “군 복무 경험이 청년 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85-197, 1995.
- [8] 오현철,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9] 구승신,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적응에 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10] 김현주, “사병의 군 조직 적응 촉진방안: 군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안보학술논문집*, 제6권, 제2호, pp.35-47,

- 1995.
- [11] 나정순, 이은경, 황선영, 정지윤, 남은혜, 권은혜, “병사들의 군 생활적응에 관한 심층면접 연구,” 군진간호연구, 제26권, 제1호, pp.147-158, 2008.
- [12] 전은경, 하양숙,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 군 생활만족도가 제대 군인의 군 경험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군진간호연구, 제32권, 제1호, pp.53-65, 2014.
- [13] 임유신, 이민수, 하순복, “부하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셀프리더십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인력개발학회, 제12권, 제3호, pp.141-167, 2010.
- [14] 김민정,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5] 이은정,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16] 이종찬, 홍아정,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pp.69-92, 2013.
- [17] 신용국, 김명소, 한영석, “셀프리더십 척도 타당화 연구: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3호, pp.31-34, 2009.
- [18] C. C. Manz and H. P. Sims,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the lead themselves*,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2001.
- [19] 이동석,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0] 김경화, “대학생 셀프리더십과 취업전략 간의 관계 및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0호, pp.369-390, 2013.
- [21] 서미경, 박근우, 이규화, “군 복무를 통한 병사의 성장과 탄력성, 대인관계의 변화: 계급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신정보사회복지학회지, 제41권, 제4호, pp.5-34, 2013.
- [22] 김유경, *대학생의 자기불일치, 자기통제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3]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and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 [24] 황은희,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grit)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25] 김수정,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26] 이유진, *그릿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 긍정정서와 직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리적 집합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27] 이재열, *대학 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도, 그릿, 마인드 셋에 관한 차이 분석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28] N. Shechtman, A. H. DeBarger, C. Dornsife, S. Rosier, and L. Yarnall, “Promoting grit, tenacity, and perseverance: critical factors fo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 pp.1-107, 2013.
- [29]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고등학생의 그릿(grit)과 객관적 추론,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간의 관계 규명,”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0호, pp.367-385, 2015.
- [30] 이정림, 권대훈,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1호, pp.245-264, 2016.
- [31] 황매향, 하혜숙, 김명심, “초등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제16권, 제3호, pp.301-319, 2017.
- [32] 류영주, 양수진, “내재적·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30권, 제4호, pp.93-115, 2017.
- [33]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grit),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전공흥미 간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35권, 제4호, pp.109-129, 2016.
- [34] 이해원, 탁정화, 이미란, “예비유아교사의 그릿 군집 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37권, 제3호, pp.249-268,

- 2017.
- [35] S. N. Slick and C. S. Lee,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8, pp.61-66, 2014.
- [36] 김세원, 신창식,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pp.216-227, 2015.
- [37] 고기숙, 정미경, "현역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우울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294-306, 2011.
- [38] 홍점동, 양난미, "군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소외감, 욕구좌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pp.1423-1441, 2013.
- [39] R. C. Stauffer, *Science and Civilization*, Preface, 1949.
- [40] 장정기, *군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 생활 경험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41] A. L. Duckworth, *Intelligence is not enough: Non-IQ predictors of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6.
- [42] 이수란, *투지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자존감의 수반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43] R. S. D. Intino, M. G. Goldsby, J. D. Houghton, and C. P. Neck, "Self-leadership: A process for entrepreneurial success,"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Vol.13, No.4, pp.105-120, 2007.
- [44] 박충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45] 문은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46] 최임숙, *대인 관계 갈등 관리 및 학교 적응 행동에 대한 성역할의 정체성의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47] K. J. Preacher and A. F. Hayes,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0, pp.879-891, 2008.
- [48] 김정은, "병사의 그릿과 가족탄력성, 군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와 진로확신의 잠재평균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0권, 제2호, pp.5-27, 2017.
- [49] 안상수, "군 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7권, 제2호, pp.321-349, 2007.
- [50] 장종식, 송병남, 차태현, "진방군인들의 고통체험: Parse의 인간 되어감 연구 방법 적용,"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2권, 제1호, pp.79-95, 2014.
- [51] 신승환, 윤찬수, "신입 공군사관생도의 체력, 성적, 투지 (grit)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1호, pp.873-888, 2019.
- [52] A. Salles, G. L. Cohen, and C. M. Mueller,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Vol.207, No.2, pp.251-254, 2014.
- [53] 신승환, 안효연, "여생도의 체력, 종합성적과 그릿 (Grit) 간 관계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32권, 제1호, pp.53-67, 2018.
- [54] 김미정,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 그릿*,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6.
- [55] 조현재,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30권, 제2호, pp.63-80, 2017.
- [56] 최인선,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57] 심윤기, *군 상담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창지사, 2016.
- [58] 정연경, 손승연, 정원호, "군 조직에서 상사의 근접관찰이 구성원의 과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가치일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9권, 제2호, pp.105-127, 2016.

저 자 소 개

주 지 향(Gi-Hyang Joo)

정회원



- 2017년 2월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문학사)
- 2019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전공(심리학 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학교심리, 상담심리, 청소년 상담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평가, 학교심리, 상담심리